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lf-differentiatio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Couples'

한영숙*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과 시간강사

Han Young Suk

Department of child & house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uples' self-differentiation by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couple's gender. The participants of the present study were 728 couples who lived in Chonbuk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Self-differentiation scale was consisted of such factors as emotional reactivity, I-position, emotional cut-off and fusion with other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total self-differentia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s of marital conflict and of marital satisfaction to levels of self differentiation.

Third, self differentiation in both husbands and wives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through marital conflict. Fourth, marital conflict in both husbands and wives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self differentiation, marital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가족원간의 문제와 갈등 표출, 가족의 해체 등 가정의 안정을 위협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위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거나 갈등에 따른 대처 행동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양한 가족해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연간 혼인 건수는 2000년 334천 쌍에서 2005년 현재 316천 쌍으로 줄어든 반면, 연간 이혼 건수는 2000년 120천 쌍에서 2005년 128천 쌍으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중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통계청, 2005). 또한 이혼 연령에 있어서도 일정한 연령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부부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고, 이러한 부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종원, 2003).

부부관계에서 갈등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부부가 함께 생활하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 갈등은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부부간의 차이를 표출시켜 서로 조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까지도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김남진, 2005). 그러므로 원만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동일한 갈등 상황이라도 부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인지, 대처방법 등에 차

* Corresponding author: Han, Young Suk
Tel: 063) 270-3844, Fax: 063) 270-3839
E-mail: 777only@hanmail.net

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는 부부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라 다르다(김남진, 2005; 한미향, 2000). 자아분화란 문제해결 능력, 적응력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부부갈등에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 정도, 대처방안을 설명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자아분화는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Kear, 1978).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독립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생활하며, 갈등에 직면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반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의존적이고, 긴장이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Bowen, 1976).

또한 Brown과 Brown(2002)은 결혼생활은 부부라는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이전에는 각자 혹은 부모가 정해 놓은 문제를 두 사람이 재협상을 통해 다시 정해야만 서로의 차이점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협상은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융합된 부부는 흔히 양보하는 것이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보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자아가 미분화되어 융합된 부부는 부부간에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자아가 잘 분화된 부부는 관계가 상승되며 나아가 부부의 결혼생활의 질을 상승시켜 준다는 것을 선행연구가 잘 입증해 주고 있다(정희정, 2001).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 요인이 되는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인정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받는다. 부부관계의 건강지표인 자율성과 독립성은 원가족의 경험에서 형성된 자아분화와 관련이 있다. 자신이 자라온 원가족에서의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주어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후에 결혼한 사람과의 결혼생활에 큰 영향을 줌을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권정란, 2005; 정은희, 2004; Mee-Gaik, 1991).

Becvar와 Beacvar(2000)는 현대사회는 과잉양육으로 인해 미분화된 성인을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 미분화된 채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두 사람의 결혼생활자체도 문제이지만 미분화된 부부는 정서적인 거리감이나 단절로 인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기제가 된다(Brody, Arias, & Fincham, 1996). 또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시달리고

남성들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유발하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Brody, Arias, & Fincham, 1996).

이러한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와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남진, 2005, 이선미·전귀연, 2001). 또한 불만족한 결혼이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결혼생활에 만족하여도 결혼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혼만족도가 결혼안정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ewis & Spanier, 1979). Gottman(1999)은 결혼만족도의 관계가 여성과 남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여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연구는 성차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원인이 되는 변수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으나, 성에 따른 영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인 2가지 축, 즉 감정과 이성차원 및 나와 타인의 분리차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의 8가지 주요개념들을 중복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측정한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영향에 대한 각각의 단편적인 분석만이 이루어져 있어,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한 적도인 Skowron(1995)의 개인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의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의 4가지 자아분화수준과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wen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에 의해 형성된 자아분화의 개념이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부부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봄으로써 부부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일관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부의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1976)의 가족체계 이론에 있어 가장 중심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기능을 자아분화와 융합(fusion), 개별화(individuation)와 결속(togetherness)이라는 한 연속선상으로 보고 있다. Kear(1976)는 Bowen의 정의를 인용하여 자아분화를 자녀가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 과정으로 보았다. Bowen(1976)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 안에는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가 있으며 이 두 체계가 분리되어 기능해야 사고와 감정의 분리가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아분화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인의 심리내적 차원의 개념으로서 '자아분화와 그 반대개념인 융합'은 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과의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신중하며, 융통성이 있고, 사려가 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반면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융합의 정도가 높을 사람으로서 감정의 세계에 쉽게 빠져들거나, 정서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객관성, 지적추리, 독립적 목표지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인관계적 차원의 개념으로 분화는 '가족관계 안에서 그리고 가족이외의 관계에서' 자아를 건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속 세력이 사고와 판단을 지배하여, 가짜 자아(pseudo-self :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변화하는 자아)가 발달되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주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타인의 견해에 심하게 의존하고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짜 자아(solid-self : 주위의 정서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일관성 있는 자아)가 발달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명확하게 사고하며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타인의 가치나 신념을 존중하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다(정은희, 2004).

따라서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 행동이나 증상은 Bowen의 이론에 의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적인 세계에 살고, 외부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의미 있는 지속적인 관계능력이 결핍되어 있기에 부부관계 및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분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감정과 지성이 분화된 정도를 말하며,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는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의 자아가 미분화되어 있을 때는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등의 여러 역동적인 기제를 통해 자아분화에 손상을 입혀 역기능적인 증상을 유발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한 가족 내에서의 문제발생은 단순히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유발시킨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자아분화 척도의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Skowron(1995)이 자아분화 척도인 DSI 2(Differentiation of Self Index 2)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아분화의 개인적 차원인 감성과 이성이 분화된 정도와 대인관계적 차원인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여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Skowron(1995)의 자아분화 척도인 DSI 2가 Bowen의 자아분화 개념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Skowron의 자아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을 통해 자아분화를 정의하고 갈등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부부간의 적응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Hamilton(1929)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후 Terman(1938) 등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고현선, 1994, 재인용).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은 정신건강과 연결되어 건전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 부부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가능하게 하므로 자아분화 수준은 결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Bowen(1976)은 부부의 친밀감에 비추어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서로에게 애정이나 승인 혹은 사랑을 끊임 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덜 느끼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개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영주 등(2000)에 의하면 부부간의 적응은 부부 당사자 간의 적응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

지 외적 조건, 즉 경제적, 사회적, 인간적 환경에 대한 적응도 포함하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인격적 적응, 성적 적응, 경제적 적응, 인척관계의 적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Reifman(1986)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전 세대의 인간관계 유형이 다른 세대의 기능적 암시적 모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Bowen, 1976).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Nelson(1987)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내적통제가 잘 되어 갈등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또한 아내가 남편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남편보다 아내들이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배우자와 관계함으로써 지적 기능보다 정서적 기능이 더 높다고 하였다(Kosed, 1998). 이는 아내들은 관계지향적 특성이 높아 성장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경험이 남편과의 관계로 이어지며, 특히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경험은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남편과 갈등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연구로는 금은순(1996)은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 다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은 결혼생활에서 갈등 및 역기능적 행동을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고현선, 1994; 김남진, 2005; 박수선, 1996).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자아분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다루었으나 자아분화 하위요인들이 부부의 갈등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의 하위요인들이 부부갈등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의 질은 Lewis와 Spanier(1979)에 의하면 적응과 만족을 더 넓고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이며, 결혼만족도의 개념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결혼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결혼만족도는 결혼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결혼만족도를 주관적, 객관적인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태도적 혹은 주관적 측정이라기보다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 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 만족도 사이의 비교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 경험하는 즐

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다. 그러므로 결혼만족도란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이며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원 개인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Brown & Brown, 2002).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나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이 있다(김명진, 2005; 채석봉, 1989; Kerr, 1978). Coleman(1984)은 부부갈등을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대인관계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갈등은 인간관계에 내재된 것으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정은희, 2004). 그러므로 갈등은 서로간의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게 할 수 있고, 작은 갈등을 미리 해결함으로써 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부부간의 적응과 조정을 촉진시키고, 부부갈등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견고한 관계로 다지게 도와줌으로써 서로 간에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갈등은 부부관계를 소원하게 하며 격렬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기능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정미, 2002).

대부분 자아분화 정도와 부부갈등 및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부부간에 적응이 잘 되며,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생활에서 갈등 및 역기능적 행동이 많이 발생하여 가족들이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현선, 1994; 전춘애, 1994; 이신숙, 2000; 이종원, 2003; 조은경, 2002). 이는 원가족에서 전반적인 경험을 파악하는 척도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여 결혼생활만족도나 부부갈등을 조사하였으며,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환경에 대한 적응이 원만하지 못해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부부갈등은 원가족과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자아분화는 원가족의 건강수준에 따른 결혼적응, 생활만족도,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명진, 2005; 이신숙, 2000; 이종원, 2003; 한미향, 2000). 그러나 자아분화를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를 탐색해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더욱 자아분화가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간접 효과를 한 모델 안에서 비교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들(고현선, 1994; 진춘애, 1994; 이신숙, 2000; 이종원, 2003; 조은경, 2002)을 바탕으로 자아분화의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부부갈등을 통하여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의 부모와 중학교 1학년의 부모 각 400명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기혼 남·여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한정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 고찰 결과, 결혼기간이 14년 정도 되었을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며 부부 갈등이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김경자, 2003; 김남진, 2005; 김선영, 2004; Gottman & Levenson, 2000)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부모 각 5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부모 각 45부 총 90부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를 토대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8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6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72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kowron(1995)의 DSI 2(Differentiation of Self Index 2)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조은경(2002)이 수정·번안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내적타당도에 의한 타당도 검사를 하였다. 총 39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0.59~0.69의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본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첫째,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은 11개 문항으로 한 개인이 환경의 자극을 받으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의 정도와 반응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 반응을 많이 하며, 자아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입장(I position)은 11개 문항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여부' 정도와 타인의 압력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반영한다. 점수가 높으면 자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12개 문항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에 대하여 방어하려는 행동들,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부인(denial) 등을 반영한다. 점수가 높으면 정서적 단절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아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넷째,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은 9개 문항으로 모든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예측하는 분화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한다. 점수가 높으면 타인과의 융합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아분화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4개 하위요인을 가지고 총 점수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총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의 점수를 역접 처리하여 자기입장의 점수와 합을 구해 다시 평균을 구하였다.

2) 부부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갈등에 대한 부부의 지각을 파악하는 최규련(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90의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3) 결혼만족도

개인의 관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결혼만족도는 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1986)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서동인·정현숙(1993)이 수정·번안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KMSS는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결혼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총 3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87의 신뢰도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

척도		문항수	남성	여성	전체
자아 분화	정서적 반응	10	.67	.69	.68
	자기 입장	10	.59	.67	.63
	정서적 단절	11	.62	.66	.64
	타인과의 융합	8	.65	.63	.64
	총 자아분화	39	.63	.66	.65
결혼 생활	부부갈등	35	.86	.90	.88
	결혼만족도	3	.87	.83	.85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0.0과 LISREL VI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부부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고,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 Duncan test와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LISREL VIII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남편의 연령은 40세 이상 45세 이하가 47.9%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40세 미만 35.1%, 46세 이상이 17.0%로 평균연령은 43.6세로 나타났다. 아내의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67.1%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 45세 이하가 29.5%, 46세 이상이 3.4%로 평균연령은 39.4세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대졸 42.9%, 고졸이하 42.2%, 대학원 이상이 14.9%로 나타났다. 아내의 학력은 고졸이하 56.2%, 대졸 35.7%, 대학원 이상이 8.1%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서비스직이 61.2%로 가장 많았고, 단순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명(%) 무응답자 제외한 백분율임

변인	구분	남편	아내	변인	구분	빈도(%)
연령	40세미만	127 (35.1)	245 (67.1)	가족형태	핵가족	300 (82.3)
	40-45세	174 (47.9)	108 (29.5)		확대가족	65 (17.7)
	46세이상	62 (17.0)	12 (3.4)		계	365 (100.0)
	계	363 (100.0)	365 (100.0)			
학력	고졸이하	153 (42.2)	204 (56.2)	종교	유	227 (62.3)
	대졸	155 (42.9)	130 (35.7)		무	138 (37.7)
	대학원이상	54 (14.9)	29 (8.1)		계	365 (100.0)
	계	362 (100.0)	363 (100.0)			
직업	전문직	65 (17.8)	43 (11.8)	결혼형태	연애혼	170 (46.5)
	서비스직	222 (61.2)	114 (31.3)		중매혼	114 (31.3)
	단순직	71 (19.5)	34 (9.4)		절충혼	81 (22.2)
	무직/주부	5 (1.5)	174 (47.5)		계	365 (100.0)
계	363 (100.0)	365 (100.0)				
가족수입	200만원미만	104 (28.7)		결혼기간	14년 미만	165 (45.2)
	300만원미만	119 (32.7)			14년 이상	200 (54.8)
	400만원미만	79 (21.8)			계	365 (100.0)
	400만원이상	61 (16.8)				
	계	363 (100.0)				

직 19.5%, 전문직 17.8%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직업은 47.5%가 직업이 없었고, 52.5%가 직업이 있었다.

가족의 수입을 살펴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32.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200만원 미만이 28.7%,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이 21.8%, 400만원 이상이 16.8%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3%로 가장 많았고, 확대가족이 17.7%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2.3%,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않은 경우가 37.7%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연예혼이 46.5%, 중매혼이 31.3% 절충혼이 22.2%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4년 미만이 45.2%로 나타났고, 14년 이상이 54.8%로 나타났다.

2.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요인별 문항 점수의 합을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도록 총 자아분화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자아분화(M=3.58)가 아내의 자아분화(M=3.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편의 자아분화 수준과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t=-1.93, p<.05$)를 보이고 있다. 자아분화 수준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정서적 반응($t=-1.87, p<.05$)과 정서적 단절($t=-1.9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정서적 반응(M=3.79)과 정서적 단절(M=4.22)이 높아 자아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부부갈등에서 유의미한 차이

($t=-1.98, p<.05$)를 보이고 있는데 아내(M=4.47)가 남편(M=4.20)보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t=2.85, p<.01$)를 보이고 있는데 남편(M=5.45)이 여성(M=4.87)보다 결혼만족을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3.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차이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분화 수준을 $M\pm SD$ 를 기준으로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1 표준편차까지를 상, 평균-1 표준편차까지를 하, 그 중간을 중,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아내의 총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F=22.46, p<.001$)과 결혼만족도($F=3.56, p<.05$)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총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아내가 부부갈등이 높은 반면, 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아내는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정서적 반응($F=17.75, F=15.21, p<.001$)과 정서적 단절($F=23.46, F=16.21, p<.001$)은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총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결혼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F=7.23, p<.001$)가 나타났다. 즉 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남편은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표 3>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¹⁾과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

M(SD)

변인		남편	아내	paired-t 값
자아 분화	정서적 반응	3.35 (.59)	3.79 (.62)	-1.87*
	자기 입장	3.25 (.61)	3.23 (.71)	.04
	정서적 단절	3.88 (.63)	4.22 (.53)	-1.93*
	타인과의 융합	3.12 (.59)	3.09 (.61)	.89
	총 자아분화	3.58 (.39)	3.38 (.61)	-2.31*
부부갈등		4.20 (.54)	4.47 (.49)	-1.98*
결혼만족도		5.45(1.21)	4.87(1.47)	2.85**

* $p<.05$ ** $p<.01$

1) 총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총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

단)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은 역점처리한 평균점수와 자기입장의 평균점수의 총합을 다시 구하여 총 자아분화 평균을 계산함.

<표 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M(SD)/D

변인	여성			남성		
	범주(n)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범주(n)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정서적 반응	상 (59)	5.48(1.35)a	3.79 (.81)c	상 (47)	4.98(1.07)	4.96(1.08)
	중(253)	5.02(1.24)b	4.08 (.54)b	중(233)	5.24(1.32)	5.23(1.30)
	하 (51)	3.98(1.43)c	4.43 (.58)a	하 (62)	5.34(1.36)	5.42(1.34)
	F 값	17.75***	15.21***	F 값	2.30	2.18
자기 입장	상 (61)	4.89(1.23)	4.12 (.68)	상 (45)	4.18 (.53)b	4.21 (.48)b
	중(243)	4.98(1.34)	4.13 (.69)	중(237)	4.46 (.53)a	4.43 (.55)a
	하 (52)	5.02(1.25)	4.14 (.75)	하 (55)	4.55 (.52)a	4.57 (.57)a
	F 값	.67	.07	F 값	8.98***	9.56***
정서적 단절	상 (55)	5.56(1.34)a	3.89 (.81)c	상 (67)	5.42(1.58)	5.42(1.21)
	중(251)	5.03(1.28)b	4.19 (.54)b	중(234)	5.31(1.76)	5.25(1.15)
	하 (47)	3.98(1.38)c	4.45 (.58)a	하 (47)	4.99(1.43)	5.26(1.43)
	F 값	23.46***	16.21***	F 값	2.89	.82
타인과의 융합	상 (56)	4.78(1.53)	5.04(1.34)	상 (65)	4.62 (.38)b	4.27 (.64)b
	중(239)	4.89(1.39)	4.83(1.45)	중(233)	4.42 (.53)a	4.45 (.55)a
	하 (62)	5.27(1.34)	5.16(1.44)	하 (43)	4.33 (.51)a	4.27 (.64)b
	F 값	1.98	1.31	F 값	6.89***	4.87**
총 자아분화	상 (52)	4.13(1.35)c	4.29 (.68)a	상 (57)	5.12(1.24)	4.56 (.49)a
	중(264)	5.13(1.28)b	4.18 (.63)ab	중(245)	5.12(1.38)	4.48 (.51)a
	하 (40)	5.56(1.34)a	3.97 (.75)b	하 (44)	5.31(1.31)	4.16 (.62)b
	F 값	22.46***	3.56*	F 값	.84	7.23***

*p<.05 **p<.01 ***p<.001

수 있다. 이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살펴 보면, 부부갈등은 자기입장(F=8.98, p<.001)과 타인과의 융합(F=6.89, p<.001)에서 차이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만족도도 자기입장 (F=9.56, p<.001)과 타인과의 융합(F=4.87,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기입장이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이 낮고, 결혼만족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타인과의 융합이 낮은 집단이 부부갈등이 낮고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4. 남편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남편의 자아분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7에서 .3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남편의 자아분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변인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정서적 반응	-					
자기입장	-.03	-				
정서적 단절	.32***	-.03	-			
타인과의 융합	-.13	.17*	-.03	-		
부부갈등	.05	-.20**	.06	.34***	-	
결혼만족도	-.18*	.31***	-.21**	.07	-.32***	-
평균	3.65	3.25	3.98	3.99	4.20	5.45
표준편차	.58	.61	.63	.59	.54	1.21

*p<.05 **p<.01 ***p<.001

남편의 자아분화가 부부갈등을 통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론적 모델은 χ^2 값이 19.81($p < .05$, $df=13$)로 나타나 이론적 모델이 수용가능함을 보여주었다([그림 1]).

남편의 자아분화 수준,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모델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남편의 자아분화 관련 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입장이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효과($v=.18$)를 갖고 있으며, 결혼만족도는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v=-.12$)를 갖고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수록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발생된 부부갈등에 의해 남편은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과의 융합은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효과($v=.20$)를 갖고 있으며, 결혼만족도는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v=-.15$)를 갖고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의 정도를 예측하는 분화의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타인과의 융합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게 나타나고, 이렇게 발생된 부부갈등에 의해 남편은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v=-.32$)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남편은 부부사이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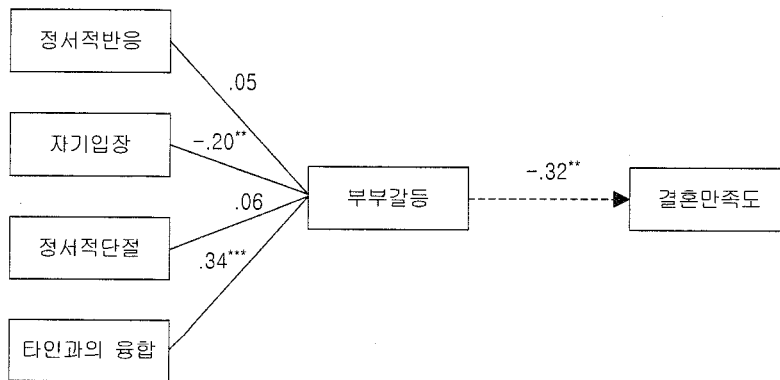
을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이 어떤 것인지를 총효과를 통해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32의 총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른 변인보다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타인과의 융합으로 총 .20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타인과의 융합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아내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아내의 자아분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8에서 .4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의 자아분화가 부부갈등을 통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론적 모델은 χ^2 값이 20.06($p < .05$, $df=13$)로 나타나 이론적 모델이 수용가능함을 보여주었



[그림 1] 남편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표 6> 남편의 자아분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직·간접 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자기입장	-.18		-.18	부부갈등
		.12		결혼만족도
타인과의 융합	.20		.20	부부갈등
		-.15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32		-.32	결혼만족도

<표 7> 아내의 자아분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변인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정서적 반응	-					
자기입장	-.05	-				
정서적 단절	.40***	-.05	-			
타인과의 융합	-.12	.06	-.06	-		
부부갈등	.19**	-.05	.32***	.05	-	
결혼만족도	-.24**	.21**	-.18*	.03	-.41***	-
평균	3.79	3.23	4.22	3.97	4.47	4.87
표준편차	.62	.71	.53	.61	.49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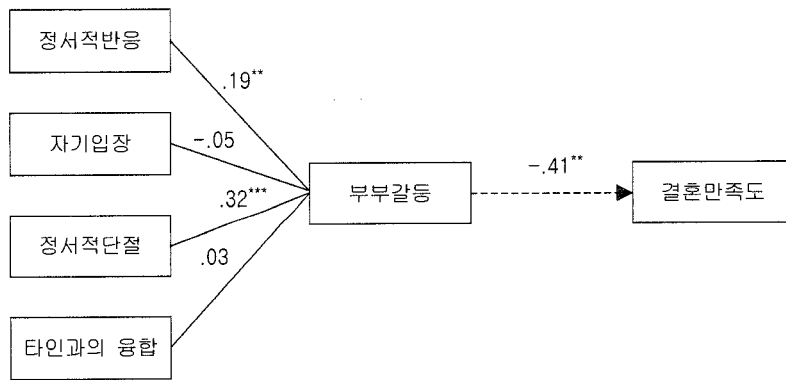
*p<.05 **p<.01

다([그림 2]).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로모델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아내의 자아분화 관련 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반응이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효과(v=.20)를 갖고 있으며, 결혼만족도는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v=-.16)를 갖고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의 정도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수록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발생된 부부갈등에 의해 아내는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단절은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효과(v=.28)를 갖고 있으며, 결혼만족도는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v=-.19)를 갖고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이러한 두려움에 대하여 방어하려는 행동들,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감정에 대한 부인(denial)



[그림 2]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표 8> 아내의 자아분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직·간접 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중속변인
정서적 반응	.20		.20	부부갈등
		-.16	-.16	결혼만족도
정서적 단절	.28		.28	부부갈등
		-.19	-.19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42		-.42	결혼만족도

등의 정서적 단절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발생된 부부갈등에 의해 아내는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v=-.42$)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아내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이 어떤 것인지를 총효과를 통해 살펴보면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42$ 의 총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른 변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부부갈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분화의 하위영역 중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적 단절로 총 $.28$ 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서적 단절이 부부사이의 갈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Bowen의 이론에 근거한 Skowron(1995)의 DSI 2(Differentiation of Self Index 2)를 적용하여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의 부부갈등에 어떤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부부의 결혼생활을 강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부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위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부모(400쌍)로, 조사기간은 2006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8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6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총 72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과 LISREL VI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총 자아분화 수준은 부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의 자아분화 수준이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수준의 하위요인에 있어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내집단이 남편집단보다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더 높게 나타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에서도

부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내집단이 남편집단보다 부부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서도 부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집단이 아내집단보다 결혼생활에 대하여 만족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내의 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이 낮고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은 높게 결혼만족도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입장이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을 낮게, 결혼만족도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과의 융합이 높은 집단이 부부갈등을 낮게 결혼만족도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과 아내 모두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을 통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경우 타인과의 융합이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정서적 단절이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넷째,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총 자아분화 수준에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편의 자아분화 수준이 아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의 자아분화가 높게 나타난 결과(이현주·강순옥, 1997)와 일치된다. 또한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서도 성차가 나타났다.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반면,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라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가 남편보다 아내에게 더 많은 부부갈등을 느끼게 하며, 이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가족생활주기 중 결혼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건강을 얻게 되지만, 아내는 심리적인 불안을 수반함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는 시각(조유리·김경신, 2000)과 일치함으로써,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에 있어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경험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의 갈등인식이 남편의 갈등인식보다 크고,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들(고현선, 1994; 김남진, 2005)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두드러지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결혼생활 14년 정도로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남편보다 아내가 부부간에 갖는 기대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갈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김경자(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Bowen(1976)의 자아분화 수준을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본 개인의 심리내적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대인관계적 측면의 자아분화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기입장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낮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과 친밀성은 부부상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자기입장의 자아분화 수준 높을수록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의 요구를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었으며, 부부만족이 높다는 김수연(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타인과의 융합이 낮은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며 부부갈등이 낮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입장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제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정은희, 2004). 반면 아내의 경우 개인의 심리내적 측면의 자아분화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은 집단이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 부부갈등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부부관계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Reifman(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아내가 남편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고 특히 남편보다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계함으로써 지적기능보다 정서적 기능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라 부부갈등이나 결혼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학자들의 이론을 입증해주고 있고 건강한 부부관계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성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자아분화 수준의 하위변인 중 아내의 경우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성장기에 원가족과 정서적 불안정, 타인에 대한 과민성,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더 많은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경우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분위기나 정서적 경험이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남편과의 관계로 전이되면서 부정적으로 남편과 갈등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분화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벗어나려고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고 정서적 단절을 많이 시도하게 된다는 Bowen(1978)의 이론을 본 연구는 확증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내의 경우 미분화된 자아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에 정서적 단절을 시도하고,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의 단절이 부부간에 영향을 미쳐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기제가 되어 결혼만족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부부갈등을 많이 일으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남진, 2005; 김명자·고현선, 1994; 한미향, 1999). 남편의 경우 자기입장과 타인과의 융합이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타인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즉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덜 경험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 남편의 경우 결혼생활의 기간이 14년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사회적 위치와 더불어 결혼에 대하여 안정감을 갖게 됨으로써 결혼지속연수가 많을수록 남편의 경우 부부갈등이나 갈등대처방법에 더욱 더 관계지향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천혜정·최혜경·강인, 2006).

넷째, 남편과 아내 모두 자아분화가 부부갈등을 통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남편은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의식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부인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오히려 남편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이는 자신의 부부생활에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결국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사이의 갈등이 많을수록 결혼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태현, 2004;

김남진, 2005; 최주화, 2000). 이러한 부부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재된 결혼 생활은 부부갈등을 점점 고조시키며 현대사회의 이슈인 가족관계의 이혼이나 별거까지 이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의 증가 원인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부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부부의 정서적인 교류를 향상시키고 부부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성별을 고려한 부부교육의 확대를 점차적으로 확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결혼만족도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갈등 요인으로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부갈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부부갈등이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부부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밑바탕이 된다는 학자들의 주장(김남진, 2005; 정은희, 2004; 천혜경·최혜경·강인, 2006; Mee-Gaik, 1991; Reifman, 1986)을 본 연구는 입증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는 부부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부갈등을 구체적인 하위변인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는 아내의 경우 정서적 단절, 정서적 반응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자아분화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부부교육에 있어서도 부부갈등에 있어 동일한 시각이 아닌 개인 심리적인 측면과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구별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생활의 차이는 자아분화 수준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인들에 의한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자아분화 수준이 부부갈등과 결혼생활 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성별에 의한 자아분화 수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제시가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부갈등을 총체적 개념으로 측정하여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

구에서는 부부갈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여 부부갈등의 어떤 측면이 결혼만족도를 더 예측해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의 형태를 이혼 후 재혼 및 사별 후 재혼 등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였으나, 거의 모든 부부가 재혼이 아닌 초혼 상태의 부부들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일반부부의 형태로 조사되었다. 점차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남성과 여성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부를 대상으로 표집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자아분화 수준,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참고 문헌

- 고현선(1994). 부부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진(2005). 부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진(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정서적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2004).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가 성격특성요인: 신혼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2004). 기혼 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6.
- 박수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인·정현숙(1993).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 연구. 가족학 논문집, 6, p 1-36.
- 유영주(2000).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p 93-102.
- 이선미·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p 203-220.
- 이신숙(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p
- 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2003). 원가족변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p 147-163.
- 이현주·강순옥(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2(1), p 170-183.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2001). 보웬의 가족철적 접근을 통한 부모의 자아분화현상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유리·김정신(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p 1-21.
- 조은경(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혜정·최혜경·강인(2006).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법의 차이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1(1), p179-202.
- 최규련(1994).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주희(2000).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적응연구.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2005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 한미향(2000).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var, D. S., & Becvar, R. J.(2000).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Boston: Allyn & Bacon.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s.),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rody, G. H., Arias, U., & Fincham, F. D.(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p 408-421.
- Brown, J. H., & Brown, C. S.(2002). *Marital Therapy : Concepts and skills for effective practice*. Thompson Learning.
- Coleman, J.(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New York: The Bobbs-Merrill.
-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 A scientifically based marital therapy*. New York: Norton.
- Gottman, J. M., & Levenson, R. W.(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p 737-745.
- Kear, J.(1978). *Mari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Fresno Campus.
- Koesed, R. B.(1998). Self-Differentiation withi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83, p 275-279.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 Free Press, p 268-294.
- Mee-Gaik, N.(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and unhealthy unlike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Nelson, T. S.(1987). *Differentiation: An investigation of Bowen theory with clinical and nonclinical couples*. The University of Iowa, Ph. D, Dissertation Abstracts.
- Reifman, A.(1986). *Emotional cut-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S International Univ, Ph. D.
- Skowron, E. A.(1995).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Construct Validation and Test of Bowen Theory*, Dissertation, Th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p 283-316.

(2006. 08. 16 접수; 2007. 03. 15 채택)